

시청자와 행복한 동행, '미디어인(人)' 문 연다

- 방통위, 시청자권익정보플랫폼 출범 기념식 개최 -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미디어인'이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은 11월 2일(목)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시청자권익정보플랫폼 '미디어인(mediin.or.kr)'의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과 각 방송사의 시청자평가원 등 7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미디어인'의 출범을 축하했다.

'미디어인'은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와 참여·소통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제공 서비스는 크게 **【지식정보】**, **【의견수렴】**, **【방송참여】**로 나뉜다.

【지식정보】 메뉴에서는 시청자와 방송 서비스의 개념부터 법·제도 현황까지, 방송과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전반을 안내한다. 초고화질(UHD) 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등을 손쉽게 시청하는 방법(방송시청가이드)과 방송상품 가입·이용·해지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도 제공된다.

【의견수렴】 을 누르면, 방송 이용과정에서의 불편에 대한 조치 안내를 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불편사항을 문의하고 처리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방송참여】** 의 경우, 시청자 모니터링 요원, 평가원, 참여프로그램 공모 등 시청자의 다양한 방송참여 방안과 미디어 교육정보가 안내되며, 그간 방영된 우수한 시청자 참여 또는 평가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 이후에는, 방송사 시청자업무 책임자 간담회와 시청자평가원 워크숍도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미디어인의 향후 운영방안과 시청자 권익관련 현안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시청자평가원 워크숍에서는 '평가프로그램에서의 시청자평가원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토론이 진행되었다.

방통위는 "미디어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청자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디어인이 실효성 있는 시청자 권익정보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및 방송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좌미애 (02-2110-1450)
		담당자	사무관	윤영란 (02-2110-1451)